



연중 제7주일(2월 19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마태 5,38-48)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마태 5,41-42)

우리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보입니다. 그들을 위해 나를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또 나를 위해서 즐거움과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2. 23.)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당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40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41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42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43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46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



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47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 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 람들도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태 5,44)

나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 5,48)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노력 하고 있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우리들의 일상을 이야기 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삶 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삶이었고, 참된 사랑의 완성을 몸소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폭력을 감싸 안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사 랑만이 세상의 악과 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선택하고, 내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 르쳐 주신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금부터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 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 뉘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 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